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시가 3월부터 패더팰 등 지역을 운행하는 23, 28, 29번 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또한 브루클라인 및 케임브리지시와 협의회 하버드 애비뉴를 통과하는 66번 버스의 무료 운행을 논의 중이다. 10일 하버드 애비뉴에서 66번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

보스톤 무료 대중교통 첫발, 23, 28, 29번 무료 운행

보스톤의 첫걸음에 다른 타운들도 무료 공조
모두들 회의적 시선에서 점차 가능성 있다로 기울어
대중교통 무료화 성공하면 더 큰 정치로 진입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보스톤의 대중교통 무료화의 첫단추가 꺾어졌다. 매타웬, 도체스터, 그리고 락스베리를 통과하는 MBTA 버스 23, 28, 29번은 3월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운행한다. 올스톤을 통과하는 66번 버스도 무료화를 논의 중이다. 보스톤 시와 매사추세츠 교통공사

(MBTA)는 2개월간의 협의 끝에 앞으로 2년간 3개 노선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미셸 우 시장과 스티브 포프택 MBTA 매니저는 9일 발표했다.

우 시장은 점차 보스톤 시내 모든 버스노선을 무료로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지하철도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우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향후 각 다른 지자체, 의회 그리고 연방정부와 협

하버드 대학원생 3명 교수 상대로 성추행 소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3명의 여성 하버드 대학원생들이 8월 무려 10여년에 걸친 저명한 하버드 인류학 교수의 성추행을 대학이 묵인하고 오히려 교수를 편드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하버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에 접수된 소장 때 따르면 하버드 대학은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명한 인류학 교수인 존 코마로프가 학생을 성추행하고 진로에 개입하는 한편 이 학생을 변론하는 동료 대학원생들에게도 보복도 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보스톤글로브는 9일 보도에서 이번 사건은 종신임용 교수가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의 진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게 하는 내재적인 교육계 계급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명의 대학원생들을 대변하는 러셀 컨블리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NEW ENGLAND
MOVEMENT MORTGAGE

인생 최대의 투자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주택융자/재융자
주택연금/투자전문융자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컨설팅
최적의 이자율로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Call Mike today
(978) 314-8818
mike.m.lee@movement.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라셀 및 노스쇼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문수 교수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 한문수 교수 LA 초청 강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최은경 부 회장,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선우) 한문수 교수는 민주평통 로스앤젤레스 협의회 초청을 받아 2월 17일 오후 9시 “2022년 한반도 및 미국경제 전망 - 남북관계에 미칠 효과 및 동향” 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한 교수의 초청 강연은 민주평통 로스앤젤레스협의회 “평화통일대학원 온라인 강좌” 전체 8개의 강좌 시리즈 중 첫번째 강좌로 통일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통일 의식 고취 등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 교수는 “지난 12월 28일 보스

턴 협의회 송년 평화통일 강연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또 LA 협의회 초청을 받아 첫번째 강사로 강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더욱 확장되고 깊이 있는 강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미국 경제 동향과 남북한 경제 비교 등을 통하여 최근 고물가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분석하고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 나아가 깊이 있게 북한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라셀 및 노스쇼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문수 교

수는 ‘민주평통 상임위원’ 이며 ‘평화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 한선우 회장은 “이번 한 교수의 LA 협의회 초청 강연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며, 각 협의회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민주평통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설명 하였다.

이번 강연은 일반인들도 오픈되므로 관심있는 한인들은 시간에 맞춰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는 2022년 2월 17일 오후 9시 ZOOM ID: 768 565 8509 그리고 PW: 5844%로 접속하면 된다.



버클리 졸업생인 한인 유학생 유학수씨

희수, WBUR 타이니데스크 우승 콘서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버클리 졸업생인 한인 유학생 유학수씨가 미공영라디오 매사추세츠 타이니데스크 콘서트에서 우승해 2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WBUR CitySpace에서 현장 공연 및 라이브 스트림 공연을 한다.

매년 미공영라디오 NPR에서 실시하는 타이니데스크 콘테스트에는 수천명의 뮤지션들이 공연 비디오를 제출해 경합한다. WBUR의 예술문화 팀은 지난해 150여 매사추세츠 비디오 공연 참가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참가자로 희수씨를 선정했다.

희수씨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최근 버클리 음대를 졸업했다. 그는 한국의 K팝을 노래방에서 부

르는 것을 좋아한다. 희수씨는 자신이 작곡한 “Me” 라는 곡을 불러 이 비디오 경연대회에 참가했다.

라이브 스트림 또는 대면 공연은 모두 무료이다. 대면 참가를 위해서는 백신 증명서를 보여야 하며 먹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Friday, February 18, 2022, 7:00 pm


공연장은 6시부터 개방

Event Location
WBUR CitySpace
890 Commonwealth Avenue
Boston, MA 02215
<https://ci.ovationtix.com/35123/production/1094524?performanceId=10930194>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주지사, 매사추세츠 28일로 학교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의무화 해제 이후 각 지자체 별로 결정하도록 허용 보스톤 시는 마스크 착용 28일 이후에도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초중고등학교(K-12)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월 28일 폐지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매사추세츠 초중등학교 교육부는 2월 28일까지 매사추세츠 주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 8월 내려진 규정으로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3번이나 연장됐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우리가 익숙한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가는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했다.

비록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달 말 해지되지만 연방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여전히 학교 스킵 버스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각 지역 학군 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할지 여부를 따로 결정할 것이라고 주 정부는 밝혔다.

제프리 라일리 초중교육부 커미셔너는 마스크 의무화 해지가 특히 어린 학생이나 영어가 2차 언어인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원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언제나 허용된다고 말했다.

라일리 커미셔너는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주 정부차원의 의무는 아니지만 누구라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개인의 선택을 학교장이나 학생들은 존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라일리 커미셔너는 아직 팬데믹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각 학군 별로 따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해 하는 여지를 주었다며 주 정부

의 결정을 옹호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특히 주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탕에는 높은 학생들의 높은 백신 접종율과 각 학교의 가정 안티젠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주에는 거의 없는 각 가정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시스템을 장착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내에서 가장 병원 입원율이 낮은 주 중의 하나”라고 매사추세츠주의 코로나 대비 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표했다.

2월 1일 현재 매사추세츠 5세에서 11세 학생중 51%가 최소 1차 백신을 접종했으며 12세에서 15세 사이는 83%, 16세에서 19세 사이는 82%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매사추세츠 유년교육부에서도 각 차일드케어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월 28일 해제하기로 했다.

주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지는 월요일 주지사의 암시로 거의 확실시 됐다. 특히 오미크론 감염의 급 하락과 매사추세츠



베이커 주지사는 9일 매사추세츠 초중고등학교(K-12)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월 28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주정부 제공)

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가 이어지면서 가능성은 더 커졌다.

델라웨어의 존 카니 주지사는 7일, 3월 31일까지 규정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월 11일부터 해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뉴저지의 필 머피 주지사도 학생들의 백신

접종율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율의 하락을 지적하며 3월 7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로드아일랜드의 댄 맥키니 주지사도 3월 2일부터 의무화를 폐지한다.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매사추세츠 저소득 근로자 50만명에게 \$500씩 보너스 지급

2020년 세금보고 기준 개인 \$38,280, 4인가족 \$78,60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는 다음 달 약 5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50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핵심근로자프리미엄페이(Essential Employee Premium Pay program)라 불리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원금 4억 6천만달러를 팬데믹에 일했던 일선 근로자에게 주는 ARPA법안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주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베이커 행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일선 근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 중 2020년 세금 보고를 바탕으로 최소 \$12,750이상(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12.75로 최소 2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소득을 올린 근로자로부터 연방빈곤선 300% 이하의 소득을 올린 근로자들에게 지급키로 방향을 바꿨다.

2020년 연방 빈곤선 300%는 개인인 경우 \$38,280 이하이며 4인 가족 기준 \$78,600 이하이다. 다만, 2020년 실업급여를 받았던 근로자들의 경우 1차 근로자 보너스 지급에서는 제외된다.

베이커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 초반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일했던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3월말까지 총 2억5천만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베이커 행정부는 나머지 2억 1천만달러는 2021년 세금보고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2차 또는 3차 라운드 지급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4천만불을 따로 배정해 2020년에서 2021년 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했어야 했던 일선근로자(front line worker)들에게 최대 2,000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이법안은 헬스케어근로자, 식품점근로자, 대중교통 근로자 등 주 비상사태 시기동안 수고한 근로자들에게 \$500에서 \$2,000까지 지급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대략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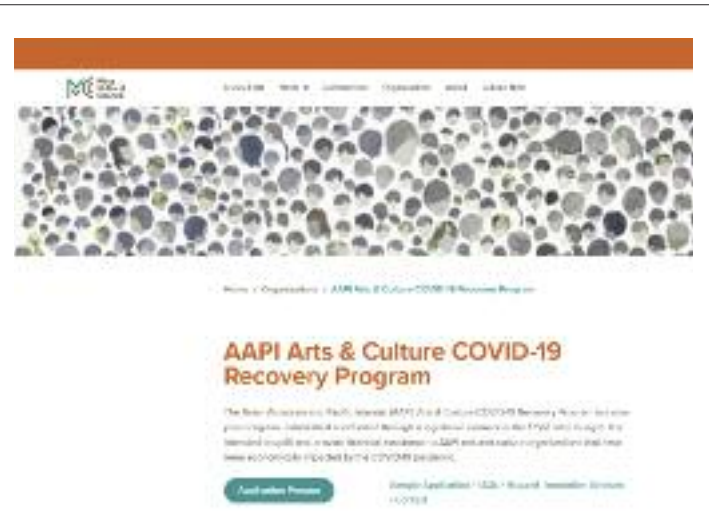
베이커 행정부는 자신들의 접근

이 세금보고 자료에 기초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법안의 기본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핫라인을 설치해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편함에 체크가 도착할 때까지 누가이 체크를 받을지 아직 분명치 않다는 것도 인정했다.

hsb@bostonkorea.com

2020년 연방 빈곤선 300%	
Household / Family Size	2020 Total Income @ 300% of FPL
1	\$38,280
2	\$51,720
3	\$65,160
4	\$78,600
5	\$92,040
6	\$105,480
7	\$118,920
8	\$132,360



아시아 예술, 문화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문화위원회는 아시아 문화 및 예술 관련 기관으로 각국문화 및 전통을 지키는 문화 이벤트, 문화공연, 교육을 하는 그룹에게 코로나 지원

그랜트를 제공한다. 총 97만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이번 지원기금은 한인 예술단체 또는 한인회, 한국학교, 종교단체 태권도 도장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자격으로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 그리고 영리단체 등이 지원 가능하다.

코로나 팬데믹 회원 지원금이 기 때문에 2019년보다 2020년에 전체 소득(스폰서, 각종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지원은 2월 7일부터 가능하며 마감은 3월 23일이다. 4월 13일 최종 자격이 되는 기관, 단체에게 그랜트 수상자가 발표된다.

https://massculturalcouncil.org/culture-now/agency-dates/?event_program=aapi-arts-culture-covid-19-recovery-program

hsb@bostonkorea.com

1 골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후 5:30

2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5:28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민 김규연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아시아인들, 경찰 단속시 경고 확률 가장 많아

주정부, 경찰 차량 단속에 인종적 차별 없어
주 공중안전부 보고서, 주간단속시 백인 단속 36% 적어
단속 백인 65%, 흑인 16%, 남미계 14%, 아시아인 기타 4% 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10개월간 매사추세츠 주내 교통단속 기록을 분석하면 인종별로 큰 편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 백인 운전자의 경우 형사범죄(criminal citation) 티켓을 발부 받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등 디테일에서 미묘한 편차가 나타났다.

주정부가 발표한 41페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과 남미계 운전자들은 백인 운전자들에 비해 경고조치로 넘어가는 수치는 적은 반면 체포 건수가 훨씬 많았다.

아시아인을 포함한 기타 운전자의 경우 일단 단속에 걸리면 경고를 받거나 경범죄 티켓(Civil citation)을 발급받을 확률이 가장 높았고 형사범죄 티켓을 받는 확률은 가장 적었다. 다음은 백인 운전자였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주 경찰 및 로컬 경찰들의 단속 기록

을 바탕으로 셉템 주립대학, 우스터 주립대학이 분석에 따르면 낮에 단속하는 것보다 밤에 단속하는 경우 좀더 인종에 따라 단속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 백인 운전자들은 낮에 단속 당할 확률이 밤보다 36%나 적었다. 낮에는 단속시 상대방의 인종을 인지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인종차별이 적게 작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단속대상이 된 운전자의 중 비 백인 운전자들은 수색을 받거나 형사범죄로 티켓을 발부받을 확률이 백인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헤이들리, 루들로우 지역 경찰과 주경찰 팩스보로 H-3소속에서는 주간에 비 백인 운전사 단속비율이 높았다.

연구진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 보고서가 추후 분석이나 논의

의 시작포인트”이며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인종차별의 요소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주정부가 2019년 운전중 통화를 금지하는 핸드프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찰의 단속에 관한 결과를 연례적으로 보고토록 한 규정으로 인해 실시됐다. 이는 그동안 경찰의 단속이 과도하게 흑인이나 남미계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의식해 법안으로 채택됐었다.

이 자료는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RMV)의 제공 자료를 연구기관이 분석했으며 이를 나이, 인종, 성별, 단속시간 및 날짜, 단속장소 등을 분석했으며, 경고, 티켓, 그리고 체포 여부 등을 함께 분석했다.

2020년 10개월 동안 경찰은 425,702건의 운전자 단속을 실시했다. 이중 60%는 로컬 경찰, 그리고 40%가 주경찰이 실시한 단속이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65%가 남성, 34%가 여성이었다. 전체 39%의 운전자들이 30대 이하였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65%, 흑인이 16%, 히스패닉이 15%였으며 아시아인, 인도계, 아시아인 퍼시픽, 중동 기타를 합쳐 4%였다.

매사추세츠 공중안전보안국은 3번의 온라인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3월 1일 오후 3:30분부터 5시 30분까지, 3월 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각각 진행한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정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l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림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션현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피터 김 부동산

주택, 콘도 및 상업 건물 전문

MA 전지역 (32개 지점 MA 전지역에 위치)



Peter Kim REALTOR®

508.904.473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Commonwealth Real Estate

Direct line: 508.530.0125
Mobile: 508.904.4735 (Text for Urgent Matters)
www.PeterKimRealtor.com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Source: Euromonitor
International Limited
Vitamins and Dietary
Supplement category.
% retail value share
2010-2019 data.
CR2020 edition

정관장

어흥!

호랑이 면역력
설에 챙기세요
정관장 면역력!



행사기간: ~2월 6일까지

정관장 면역력 설날대잔치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3개 구입시 120g 증정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1박스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코로나 백신 생리주기 변경과 연관성 확인

신규 연구, 백신 접종 후 생리 주기 늦어져 생리 주기 불순은 일시적, 백신의 혜택이 훨씬 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백신을 접종한 후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생리주기가 불순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보고됐었다. 이 같은 코로나백신이 여성들의 생리불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 결과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오레곤 헬스앤사이언스대학의 산부인과 엘리스 애들먼 교수는 생리주기 영향과 관련해서 “이는 아주 작은 변화인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말이 맞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1월 5일 산부인과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들은 4,000명의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그리고 비백신접종자들의 6달간의 생리 주기를 추적했다. 첫 번째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약 하루가 조금 안되게 생리주기가 늘었고 같은 생리주기 안에 두 번째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은 최대 2일까지 생리주기가 늘었다.

다만 백신은 생리주기 기간에

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 생리주기가 더 많이 변하지도 않았다.

애들먼 교수는 연구를 통해 생리 불순은 일시적인 것을 발견했으며 이를 재확인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 백신으로 인해 다른 건강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이자 여성대변인은 회사가 수만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비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나 임신 변화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연구와 기타 연구들은 백신에 대한 우려를 한층 완화시키게 만들었다고 이번 생리주기 변화 연구를 이끌었던 캐트린 클랜시 일리노이 대학 인류학자는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백신이 불임과 재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백신 접종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며 여성들과

임신 여성들에게도 효과적이었다. 또한 임신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2일 현재 연방 보건 관련 기관들은 백신접종 후 이상징후 보고 시스템을 통해 총 3천368건의 생리주기 이상 신고를 받았다. 영국의 경우 3만8천명이 생리주기 변화를 신고가 접수됐다. 영국의 신고에는 아주 과도한 생리주기 변화도 있어 많은 우려를 샀다.

클랜시 박사가 이끄는 팀이 과도한 출혈뿐만 아니라 생리가 끊기는 현상 등 생리주기 변화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는 피임약의 사용 또는 호르몬제 복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현재 다른 연구진에 의해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14%의 생리출혈 증가가 보고됐고 15%가 첫 번째 접종 후 고통이 보고됐다. 그러나 변화는 일시적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1월 15일 온라인에 보고됐다.

생리주기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정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안드레아 애들로우 매스제너럴 산모약 전문의는 백신이 생리주기에 영향을 주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한가지 원인은 백신 접종 후 신체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들로우 박사는 백신의 접종으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생리주기 변화 등의 부작용보다 훨씬 크므로 백신을 접종할 것을 환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버드 대학원생 3명 교수 상대로 성추행 소송

▶▶1면에 이어서 권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대학이 바로잡아야 하는 권력관계이자 동시에 대학이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도록 대학이 교수들에게 준 권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자체 조사결과 성추행 및 교수 행동지침의 위반이 발견된 후 코마로프 교수는 지난월부터 무보수 정직상태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대학의 조사 결과가 코마로프 교수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코마로프의 변호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어떤 학생도 성추행하거나 보복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코마로프 교수는 분야의 석학이며 수십년간 수세대의 학생을 지도해 발전시키는데 에너지를 헌신했던 사려깊은 사람이다. 실제 증거없이 가십이나 한타지로 그의 경력에 대한 공격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코마로프 교수가 공중장소에서 한 번 이상 대학원생인 킬번씨를 강제로 키스하고 만지는 행위를 했으며 큰소리로 그녀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다른 2명의 대학원생은 이 사건을 대학에 보고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했다. 앙심을 품은 코마로프 교수는 이 두 학생이 다른 분야에서 직장을 구하기 힘들도록 보복했다는 주장이다.

3명의 대학원생들은 대학에 성추행 관련 청원인 타이틀 9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 절차는 1년이 넘게 걸렸다. 하버드는 사건의 심각함을 무시하고 제한적인 문제만을 인정하는데 그쳤다. 사건

의 핵심인 킬번씨에게 키스하고 만지는 행위와 학위 취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코마로프 교수의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해서 교수가 킬번의 카메룬 현장 연구에 자신의 동성연애 파트너와 함께 여행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마로프 교수는 향후 성과 관련된 폭력의 위험성을 포함한 각종 위험에 대해 경고한 것이란 주장이다. 변호사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대화였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카마로프 교수에 대한 징벌조치와 관련해서 38명의 하버드 교수들은 이 같은 징벌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편지를 대학에 보냈다.

그러나 코마로프 교수가 변명한 것을 바탕으로 사건을 접했던 교수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란 점이 알려지자 상당수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성명서에 빠졌다고 나섰다.

소장에 따르면 코마로프 교수는 약 2년에 걸쳐 대학원생인 킬번씨를 만지고 키스했으며 자신과 혼자만의 공간에 그녀를 초대하기도 했다. 그녀가 그를 피하려 하자 그녀가 다른 교수들과 일할 수 없도록 보복했다.

고소인 중의 한사람인 맨다바씨는 수년간 이 문제를 하버드 내에서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늘 막다른 길에 부딪혔고 이에 대한 역풍이 불었다고 말했다.

코마로프 교수는 2020년 8월 하버드 크림슨이 이 사건을 보도한 후 정직상태에 처음 처해졌다. 대학 측은 조사 후 올 봄학기부터 무보수 정직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대학에 따르면 기율학기에서도 제한적인 임무만 맡게 된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화)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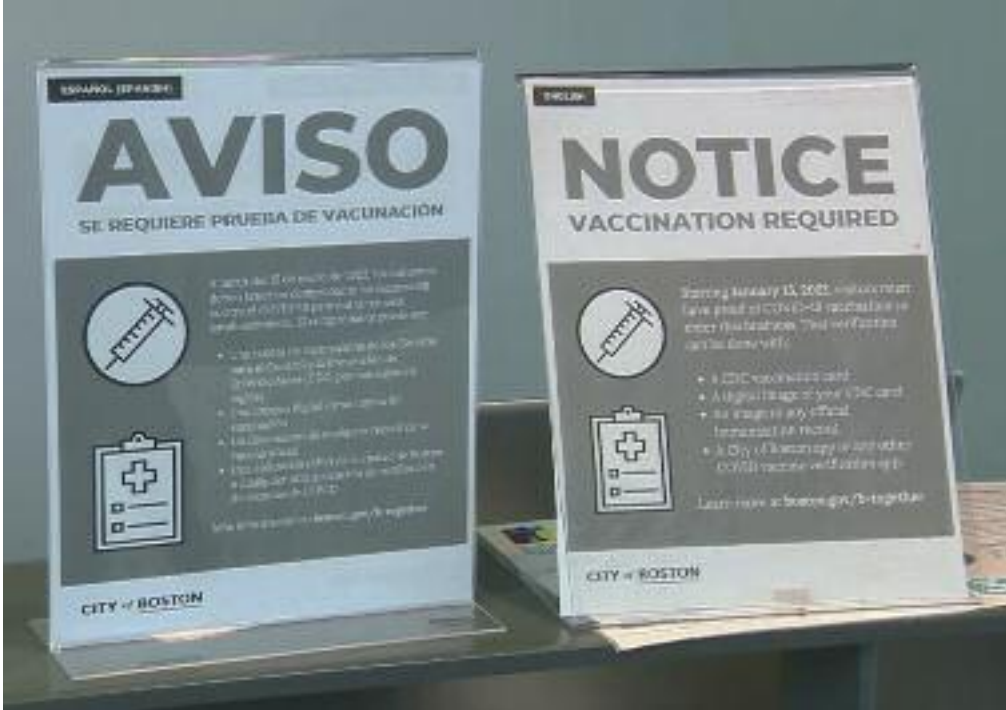
공인세무사 김창근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코로나 완화시, 보스턴시 실내 백신 접종 의무화 곧 해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앞으로 코로나 감염자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곧 레스토랑 및 기타 장소의 백신접종 의무화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중환자실 병상 입원율이 95% 이하로 내려가고 하루 병원 입원자 수가 200명 이하이며 보스턴 보건부가 집계하는 양성 확진율이 5% 이하로 내려가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백신 의무화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보스턴의 백신 접종을 높이는 의무화 정책이 효력이 있었음이 각종 지수 하락에서 분명해졌다. 우리는 오미크론의

대유행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평했다. 보스턴 실내업소 백신의무화는 상당한 논란의 중심이었다. 일부는 보스턴시의 명확한 규정 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인가 하면, 일부는 힘든 식당들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우 시장은 이번 백신의무화 정책이 중단되지만 향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경우 다시 이 조치를 재개할 것이라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백신의무화는 보스턴, 브루클라인 그리고 샬럼 등에서만 함께 참여했으며 케임브리지, 서머빌, 그리고 알링턴 등은 당초 참가 의사와는 달리 실시를 보류했었다.

보스턴은 백신의무화 규정을 해제해도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시킬 예정 이라고 우 시장은 밝혔다. 약 3주전 보스턴은 백신의무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백신의무화는 지난해 12월달부터 스몰 비즈니스 웹비나를 통해 이 정책을 발표했었으며 지금까지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단 한 건의 구두 경고 조치만 내렸다. 세건 아이도우 보스턴 시 경제 기회 및 포용 수석은 “그동안 B 투게더 백신 의무화에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참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 무료 대중교통 첫발, 23, 28, 29번 무료 운행

▶▶1면에 이어서
 력해 이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우 시장은 “교통은 결국은 상호연결이다. 이는 평등과 경제적 모빌리티에서 그리고 기후변화 대처 목표, 애스마를 줄이고 공해, 교통혼잡을 줄이는 공중보건 목표의 달성에 까지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버스 서비스는 이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취임 첫날 시 의회에 2년간 3개 노선 무료운행을 위한 8백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당초에는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연방교통국의 규정에 따라 MBTA와 시가 충분한 재원 분석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3월로 늦춰졌다. 보스턴 시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무료화한 3개 노선의 손실 8백만 달러를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을 사용해 보상할 계획이다. 우 시장은 이번 무료 버스 운행 지역은 주로 흑인 등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거주한 곳이라며 코로나 지원금 사용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우 시장이 이번 무료 버스 계획을 발표하자 보스턴 주변의 시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브라이언 케인 MBTA 자문위원이자 브루클라인 교통위원회 회장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관련자들과 만나 현재 66번 버스의 요금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버드 스퀘어에서 브루클라인까지 운행되는 66번 버스는 울스턴 하버드 예비뉴를 통과함

에 따라 한인 유학생들, 한인 업계에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3개 지자체는 66번 버스의 버스 요금의 손실이 얼마나 될지를 결정하는 과정 중이다. 앞서의 3개 노선에 비해 3개의 지자체의 손실금 부담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것이다. 케인 회장은 이를 충분히 계산해 올 여름부터는 66번을 무료로 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케인 회장은 “미셸 우 시장이 대중교통요금 무료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매사추세츠에서 아주 적절한 정책 논의 사항으로 만들었다”고 미셸 우 시장의 노력에 후한 점수를 주었다. 케임브리지 섬벌 시디퀴 시장은 어떤 버스노선을 얼마만큼 무료로 운행할지를 연구하는 실무그룹을 만들어 조사중에 있다. 시디퀴 시장은 약 3개월 내 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로 운행할 경우 버스 이용객이 많아지게 되고 각 정거장에서 요금 때문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제시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포프택 T 매니저는 언제든지 다른 지자체와 무료 버스운영과 관련해 상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보스턴 전체 무료버스운행을 위해서는 1년에 3천만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 시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어떻게 비용절감 등 효율적인 추가 운영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맥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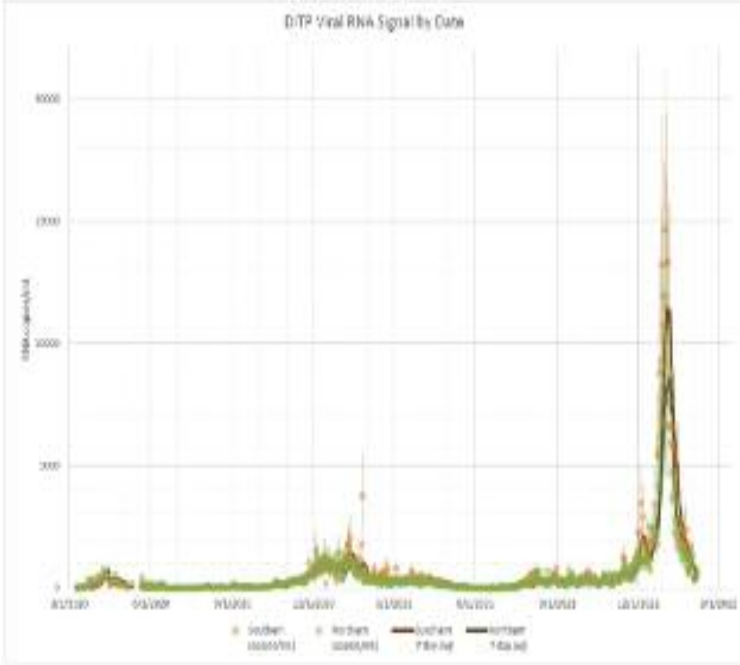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MMRA의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이 급강하 하고 있다

보스톤 하수도 바이러스 검출량 계속 급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완연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의 향후 감염자 수를 예측해볼 수 있는 하수도 바이러스 검출량이 계속 급감하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매사추세츠 수자원공사(MWRA)에 따르면 보스톤 항구 디어아일랜드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된 보스톤 남부지역 바이러스 검출량은 올해 초 최고치의 18분의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줄었으며 북부지역 바이러스 검출량은 1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케임브리지 소재 바이오봇 애널리틱스는 하수도 바이러스 검출량이 향후 며칠 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7일 평균 바이러스 보스톤 남부지역 검출량은 밀리리터당 633 RNA 개체수로 급감했다. 1월 3일의 경우 11,446 RNA였다. 보스톤 북쪽의 경우 572 RNA로 1월 5일 8,644 RNA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사추세츠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미 지난 늦은 봄 및 초여름 수준으로 감소해 봄철 들어 아주 적은 양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2월 9일 수요일 현재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2,794명이었고 사망자는 69명이었다. 7일 평균 양성확진자 비율은 4.08%로 급감했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병원 입원 환자도 1,234명이었다. 감염자 비율은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뤘다.

hsb@bostonkorea.com

미국 중산층도 점점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

(보스톤 =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주택 재고량이 감소하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미 부동산협회(NAR)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작년 말 연간 가구 소득 7만 5000달러~10만 달러(8900만원~1억2000만원)의 중산층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수가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41만1000채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NAR은 가계 소득 구간별로 주거비를 연 수입의 30% 이내에서 지출한다고 가정했다. 주거비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를 기준으로 한 이자, 보험과 세금을 아우른다. 여기에 매도 가격별 재고 주택 수량을 감안했다.

연 소득 7만 5000달러~10만달러 가구는 작년 12월 활성화된 주택 재

고의 51%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019년 12월 58%에서 7%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연 소득 10만~12만5000달러(1억 4900만원)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비중은 8%포인트 감소한 63%였다.

주택 구매 여력은 가계 소득 최상층을 제외한 모든 가계에서 줄었다고 NAR은 분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옥스나드,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러스 등 메트로지역에서 연 소득 7만 5000달러~10만달러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후 신규 주택 건설 활동이 둔화하고, 기존 주택은 집 주인이 매도나 이사를 꺼리면서 매물이 급감했다.

작년 12월 매물로 나왔거나 계약된 주택 수는 91만채로, NAR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팬데믹 이전까지 미국 주택 수요자는 낮은 모기지 금리를 활용해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게 일반적이었다.

WSJ는 “주택 구매는 많은 미국 가정이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전형적인 경로였다”며 “하지만 집 값이 주택 수요자가 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경제학자들은 가계 미래를 위해 비축해 둔 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 급격하게 오르는 임대료는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려는 수요자를 더욱 좌절시킨다고 WSJ는 지적했다.

일각에선 올 봄 주택 매물이 늘어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누그러뜨릴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현재 건설 중인 주택 수가 다년간 최다 수준이며, 상당수 주택이 연내 완공돼 공급될 예정이란 점에 미뤄서다.

bostonkorean@hotmail.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강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헤드 스탠드(머리서기)자세 도대체 왜 해야하는 거죠?

요가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Headstand, 즉 머리서기는 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로망(?)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 자세를 완성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머리서기 자세를 왜 해야하는 걸까요?

머리서기 자세의 효과

- 전신 근력 향상과 체중 감량**
다리를 공중에 대고 하는 역자세는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체력이 소모됩니다. 특히 몸의 중심부를 둘러싼 코어 근육을 키워주고 팔과 어깨, 등 전신의 힘을 길러 전신 체지방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 혈액순환과 탈모개선**
머리가 가슴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머리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산소 공급량이 많아져 탈모 개선과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 집중력 강화와 스트레스 감소**
호흡에 집중하며 역자세에서 머무르다보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자세가 익숙해져 정자세에 머무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면서 스트레스지수가 낮아집니다.
- 피부개선과 리프팅효과**
거꾸로 서기에서는 피부가 반대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를 가져오고 신선한 영양분이 얼굴로 전달되는 것은 물론, 얼굴의 모세혈관을 자극하고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해 피부 트러블을 개선시키고 피부톤을 밝게 해줍니다.
영상보며 머리서기 자세 A-Z까지 배워보기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한 후, 최근 영상에서 (Day31) 이 제껏 이렇게 알려준 영상은 없었다. 머리서기...편을 찾아 따라해보세요.

- 안전한 머리서기를 위한 6단계 (총 사진 7장)
- 1단계 코어의 힘을 키우고 햄스트링(다리 뒷면 근육)을 스트레칭하기
- 누운 상태에서 한다리를 높게 올려 손으로 잡아당깁니다.
- 두다리를 최대한 편 상태에서 내쉬는 숨에 가슴을 허벅지쪽으로 올립니다.
- 양쪽을 번갈아가며 진행해주세요



- 2단계 손으로 벽 밀어내기
- 손으로 벽을 강하게 밀며 두 견갑골 사이의 간격을 넓힌 상태에서 버텨봅니다.
- 어깨의 안정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귀와 어깨를 멀리 한 상태에서 코어의 힘으로 좀 더 강하게 벽을 밀어냅니다.



- 3단계 머리 바닥에 대기
- 어깨 밑에 두 팔꿈치를 내려놓고 두손으로 짚지 않습니다.
-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손 가까이에서 정수리를 가져가 바닥에 땀니다.
- 무릎을 바닥에서 떼고 엉덩이를 천정쪽으로 올려 몸을 산도양으로 만들어주세요
- 천천히 발을 팔꿈치가 있는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발꿈치를 들고

한다리를 올릴 준비를 해주세요



- 4단계 한다리 올려 벽으로 올라가기 (초보자의 경우는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벽을 이용해주세요)
- 엉덩이를 어깨 위까지 올렸다면 한다리를 천정을 향해 높게 올립니다.
- 지지하고 있는 다리를 구부리고 점핑해 반대쪽 올린 다리를 더 높게 올려 발을 벽으로 가져옵니다.
- 두발을 벽에 올리고 홀딩합니다.
- 계속해서 복부를 끌어당기고 팔꿈치를 바닥에 밀어내는 힘을 가져주세요



- 5단계 벽에서 한발 한발 떼보기
- 동작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벽에서 한발 한발 떼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 많이 흔들린다면 벽에 의지해 충분히 연습하고 좀더 힘이 생겼을 때 시도하셔도 늦지 않아요
- 6단계 벽 없이 매트위에서 해보기
- 벽을 이용해 버티는 연습을 하면서 전신의 근력이 충분히 길러지고 자세가 안정됐다면 벽을 이용하지 않고 한다리씩 올려 봅니다.



- 숙련자들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 코어의 힘을 사용해 두다리를 동시에 올려보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유튜브도 좋지만 새해에는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샘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 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 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ee@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福

HAPPY NEW YEAR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임인년, 흑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COMPASS

하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처리...상원 통과해야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다.

이 수정안은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천400명), 칠레(1천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대한 선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과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비자 등 일자리 개방 분야도 협상했지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후 2013년부터 미국 회기 때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가 이번에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 법안은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jbryoo@yna.co.kr

시민권 없는 입양인구제법 하원 통과...한인 1만9천명 수혜대상

'미국경쟁법안' 포함돼 처음으로 하원 관문 넘어...상원과 조율 남아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등 앞장서 의원들에 발의 동참 설득 · 여론 조성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 1만9천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4일(현지시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경쟁법안'에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인 작년 3월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에 합쳐져 하원 관문을 넘은 것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4만9천여명의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이 1만9천명 정도라고 KAGC는 전했다.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 이혼·과양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경쟁법안의 경우 유사한 법

안이 작년 6월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조율이 무난히 이뤄질 경우 입양인 시민권 획득 조항 역시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상·하원의 조율에는 짧게는 1달, 길게는 2~3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의 일환으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엄청나게 자랑스럽다"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입양인에게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잘못도 없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GC는 그동안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안 마련에 역점을 뒀다.

특히 KAGC는 민주·공화당의

원들의 참여로 초당적인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휴스턴 등 미국 각지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참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민주당 소속 스미스 위원장 외에도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 등 60여명의 하원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스미스 의원과 커티스 의원의 초당적 헌신과 공동 발의에 나서준 의원들, 각계의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년에 걸친 이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법안이 하원을 처음으로 통과하는 이정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 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혜택을 입지 못했다.

nari@yna.co.kr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워싱턴 DC의 소재 한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고기값도 대폭 올랐다

미 1월 소비자물가 7.5% ↑ ...전망치 넘어 40년만에 최대폭

車·에너지·식료품 전방위 상승...연준 '상당한 금리인상' 압력받을듯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새해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 페달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7.5% 급등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1월 소비자물가 7.5% ↑ ...전망치 넘어 40년만에 최대폭(종합2보) -2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만의 최대폭 상승으로, 전월(7.0%)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를 상회했다.

전월 대비로도 0.6%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0.4% 상승)를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0%,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근원 CPI 상승률도 시장 전망치(전년 동월 대비 5.9%, 전월 대비 0.4%)를 넘었다.

자동차, 에너지, 식료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이어졌다.

연료유 가격은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46.5% 급등해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전체적인 에너지 비용은 전월보다 0.9%, 전년 동월보다 27%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었던 중고차 가격은 이번에도 전년 동월보다 40.5% 치솟았으나, 전

월 대비 상승폭은 1.5%로 축소됐다. 식료품 물가는 전월보다 0.9%, 전년 동월보다 7% 각각 올랐다.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전월보다 0.3%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최소폭 상승했으나, 1년 전보다는 4.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는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미국시장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앤드루 헌터는 식료품과 주거 비용의 동반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주기적 가속화가 진행 중이라는 견해에 힘을 실는다"면서 "이례적으로 빠빠한 노동시장과 맞물

려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진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수급 불일치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근로자 임금, 주택 임차료 상승과 맞물려 고착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예상치를 뛰어넘은 물가상승세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금리인상 결정을 앞둔 연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CNBC방송은 진단했다.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확률을 추산하는 시카고상품거

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CPI 발표 후 연준이 3월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종전 25%에서 44.3%로 뛰었다. 올해 6회 금리인상 확률도 기존 53%에서 63%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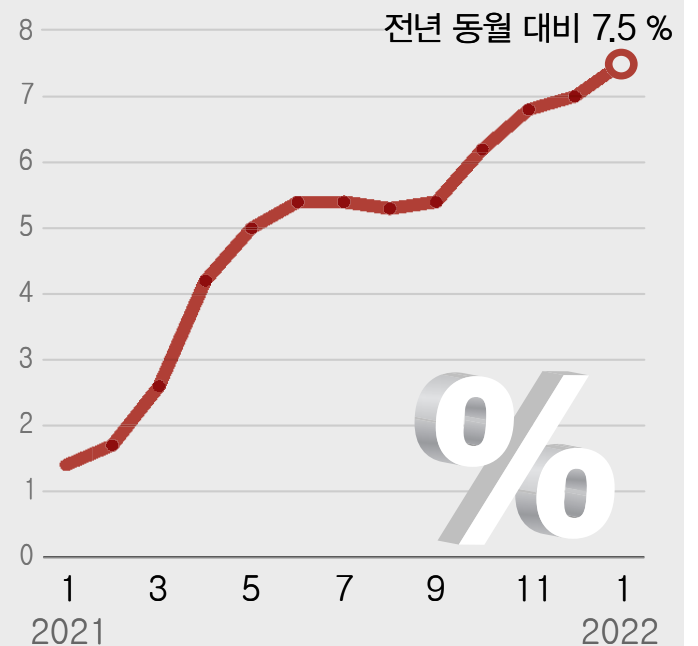
과도한 금리인상은 경제성장과 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은 일제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장중 2% 선을 터치해 201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하락 출발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 1.9% 떨어졌다가 오전 10시30분 현재 낙폭을 0.2% 대로 줄인 상태다.

firstcircle@yna.co.kr

미국소비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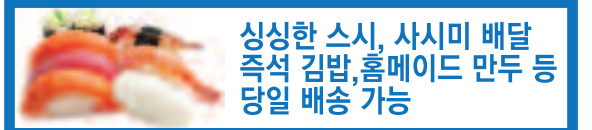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부



장성구 기자20220211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터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터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미국 뉴욕의 1달러 매장에 등장한 1.25 달러 가격표

인플레이션에 美 가구 월지출 30만 원 ↑ ...중산층이 최대 피해

히스패닉 가구 물가상승률 7.1%...아시아계는 5.6%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4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물가 때문에 평균적인 미국 가구의 월 지출이 추가로 250달러(한화 약 30만 원)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인플레이션이 미국 가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물가상승률이 2.1%였던 2018년과 2019년의 미국 일반 가정 소비 관련 데이터에 물가상승률 7%를 대입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 소속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라이언 스위트는 "매월 250달러는 가계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계층별로 소비행태가 다른 만큼 인플레이션 충격도 계층별로 상이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형은행 웰스파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중산층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6.7%로 다른 계층보다 0.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중산층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 가격이 50%

가까이 급등하고, 중고차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소득층도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지만, 중고차보다 새 차를 구입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최근 미국에서 새 차의 가격 상승률은 중고차보다 완만하다.

또한 고소득층은 외식이나 여가에 사용하는 돈이 다른 계층보다 많지만, 외식이나 여가비용은 다른 품목만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가구가 느끼는 물가상승률이 7.1%로 다른 인

종보다 높았다. 소득이 미국 평균보다 높은 아시아계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5.6%로 낮았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7.5% 급등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의 최대폭 상승으로 자동차, 에너지, 식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이어졌다.

koman@yna.co.kr

바이든, "국민에 스트레스... 연말까진 상당부분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김윤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통계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는 물가가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노동부의 1월 물가지수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고물가에 맞서 우리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고 있지만, 오늘 발표는 미국인들의 살림이 장바구니 물가로 실질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미 노동부는 이날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5%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로, 물가상승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미 중앙은행적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상당수준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처럼 고물가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도 "우리가 이 도전을 극복할 것"이란 징후도 있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계속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 두 가지가 ▲높은 급여의 일자리와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축 ▲글로벌

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잡기였다면서 "우리 그 첫 우선순위에서 역사상 가장 큰 일자리 증가 등 역사적인 성공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높은 급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물가 상승을 아직 못 잡으면서 경제 정책에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자평인 셈이다. 물론 물가 역시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고 그의 전망이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난달 긍정적인 실질 임금 상승과,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던 자동차 가격상승 둔화를 지켜왔다"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뉴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미국인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 우리가 이룩한 진정한 진전의 신호"라며 "정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두 손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계속해서 인프라와 제조업을 재건해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고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방약부터 아동과 노인 돌봄, 에너지 비용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가족과 노동자를 가로막아온 분야의 비용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신규확진 5만4천122명, 연일 최다...오미크론 유행에 폭증세 지속

사흘새 3만명→5만명대로...위중증 282명 · 어제 20명 사망, 치명률 0.59% 경기 1만7천751명-서울 1만1천875명 등 수도권만 3만3천622명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10일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훌쩍 넘겼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4천122명 늘어 누적 118만5천361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4만9천567명)보다 4천555명 많은 것으로, 역대 처음으로 5만명 선을 넘으면서 바로 5만명대 중반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1만3천8명) 1만명대에 올라선 이후 1주일만인 이달 2일(2만268명) 2만명대로 올라선 이후 5일(3만6천345명) 3만명대 중반, 전날인 9일 4만명대 후반에 이어 이날 5만명대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수는 매주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3일(2만2천906명)의 2.4배, 2주 전인 지난달 27일(1만4천514명)의 약 3.7배에 달한다.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설 연휴 대면접촉 증가와 맞물려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에는 하루 최대 36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

놨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위중증 환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82명으로 전날(285명)보다 3명 줄었다. 13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4일 257명까지 떨어졌던 것보다는 늘어 이를 연속 280명대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해 예방효과가 감소한 고연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내달 이후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망자는 20명 늘어 총 6천963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59%다.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19.4%(2천538개 중 492개 사용)로 전날(18.5%)보다는 0.9%포인트 증가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 수는 17만4천177명으로 전날(16만8천20명)보다 6천157명 늘었다.

재택치료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 4만4천852명, 서울 3만8천530명, 인천 9천599명 등 총 9만2천981명(53.4%)이다.

정부는 중증 위험이 높은 취약군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날부터 60세 이상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건강 모니터



9일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링을 시행하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는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한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만4천34명, 해외유입이 88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1만7천738명, 서울 1만1천873명, 인천 3천900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3만명을 넘어 3만3천601명(62.2%)이 나왔다.

비수도권은 부산 2천630명, 대구 2천328명, 경남 2천341명, 경북 1천813명, 전북 1천754명, 전남 1천492명, 충남 1천711명, 대전 1천447명, 광주 1천422명, 충북 1천81명, 강원 962명, 울산 732명, 제주 448명, 세종 272명 등 총 2만433명(37.8%)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감역 제외)을 합한 신규 확진자는 경기 1만7천751명, 서울 1만1천875명, 인천 3천900

명 등 수도권만 총 3만3천62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날(165명)보다 77명 줄었다.

지난 4일부터 2만7천438명→3만6천345명→3만8천689명→3만5천283명→3만6천717명→4만9천567명→5만4천122명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3만9천737명이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의 통합 검사량은 35만3천577건 이뤄졌다. 검사 양성률은 13.3%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기본접종을 마친 비율)은 이날 0시 기준 86.1%(누적 4천417만389명)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56.0%(누적 2천873만5천603명)가 마쳤다.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중앙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FEB. 11th - FEB. 17th,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THE FIRST FULL MOON OF 2022. COME CELEBRATE WITH H MART!
 휘영청 달 밝은 밤 소원을 빌던 정월대보름! H 마트에서 준비한 견과류, 나물, 곡류 드시고 한 해 동안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세요.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Sumo Mandarin 한라봉 BOX \$19.99	Kabocha 단호박 LB \$0.99	Korean Pear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9 CNT/BOX \$36.99	White Cabbage 양배추 LB \$0.99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2.49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SIZE 36 S/EA 3 FOR \$3.99	Persian Cucumber 페르시아인 오이 14 OZ/PKG 2 FOR \$5.00	Korean Pear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3 EA/PKG \$12.99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 등심 스테이크 SIZE 10 UP/LB \$12.99	Fresh Ox Tail 생 소꼬리 LB \$14.99
Fresh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생 돼지등심 컷릿 (돈가스용) SLICED/LB \$5.99	Fresh Chicken Drumstick 생 닭다리 LB \$1.49
Frozen Pork CT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불고기 SLICED/LB \$6.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SLICED/LB \$8.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WILD CAUGHT SIZE 10-20/LB \$6.99	OHGWANG Dried Squid Stick Snack 오광 칠판구이 오징어스틱 4 OZ/PKG \$8.99
Frozen Unagi Kabayaki 냉동 우나기 9 OZ/PKG \$11.99	Frozen Abalone 냉동 전복 LB \$21.99
Frozen Seasoned Seaweed Salad 냉동 해초무침 1.1 LB/PKG \$5.99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2.99	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Chapagetti 농심 짜파게티 4.48 OZ X 16 EA/BOX \$14.99
H MART SMART CARD ONLY CHUNG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푸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14.99	H MART SMART CARD ONLY HAI 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5.99

KYONG GI MI Medium Grain White Rice 경기미 40 LB \$34.99	CJ CHUNGJUNGONE O'FOOD Bap Cooked White Rice CJ 청정원 즉석밥 7.04 OZ X 12 EA/BOX \$14.99	I'M E Minsaeng Ramen Instant Noodle I'M E 민생라면 4.05 OZ X 5 EA/PKG 2 FOR \$5.00	HAIOREUM Premium Coarse Salt 해오름 명품 굵은 소금 10 LB \$13.99	HANSANG Seasoned Small Octopus 한상 열풍 추꾸미 1.43 LB \$16.99
DANYA Japanese Style Noodles Somen 단야 소면 3 LB \$3.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	Q1 Homemade Sweet Korean Pan Cake Mix 큐원 홈메이드 첼호떡 믹스 ORIGINAL 19.4 OZ \$3.99	HAIOREUM GOMPYO Wheat Flour 해오름 곰표 중력 밀가루 5.5 LB \$3.99	YOODONG Canned Bai-top Shell 유동 자연산 골뱅이 캔 14.1 OZ \$6.99
DONGWON Luncheon Meat 동원 런치미트 12 OZ \$2.99	HAITAI Matdongsan Peanut Crunch 해태 맛동산 10.58 OZ \$2.99	KÜHAUS Foot Touch Heater 쿠하우스 2단 발터치 전기히터 EA -\$57.99 \$39.99	HELLO! PTC Tower Ceramic Fan Heater 헬로! PTC 세라믹 팬 히터 WHITE/EA -\$44.99 \$29.99	HELLO! Glass Water Bottle w/ Silicone Sleeve 헬로! 실리콘커버 유리물병 PINK/BLUE/ORANGE MIX -\$10.99 \$7.99 500 ML /EA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콥 신 617.710.8836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송문주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샬리 임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제는 정말 과거가 됐다

침묵하던 文 '盧 트라우마' 꺼내며 尹에 분노...대선 한복판으로

尹 '적폐' 규정으로 '역린' 건드렸나...文-尹 전면전 분위기

촛불계승·적폐청산 자처하던 文정부...靑 관계자 "모욕으로 느꼈을 것" 검찰 독립성 확보 노력 부정...범죄집단 규정하자 '묵과 안돼' 판단한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정조준하며 한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이다.

윤 후보가 언급한 '집권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하면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수위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향후 문 대통령과 윤 후보의 충돌이 어떻게 대선 판을 흔들어놓을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전날 윤 후보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두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척 했다는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돈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더라도 예상 외의 강력한 발언

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철저한 정치 중립을 강조하며 대선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삼가왔다.

그럼에도 이날은 분노를 여과없이 표현한 것에는, '현 정권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할 윤 후보가 먼저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권보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검찰총장 당시 윤 후보의 권한을 보장해줬음에도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만큼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은 윤 후보가 현 정권을 비판하며 '적폐'라는 단어를 쓴 것이 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 정부'로 스스로를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후보의 발언이) 문 대통령으로서 정부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됐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의 발언이 노 전 대통령의 전례를 상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분노는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비극적 선택을 한 배경에 무리한 검찰수사가 있었다는 인식이 여권에 팽배한 상황에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언급이 '기획사정'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으로서 이런 상황을 방지할 경우 대선이 다가올수록 분열과 갈등이 팽배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도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없다"며 윤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연관된 정치적 사안에 분노를 표한 바 있다.

201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본다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 문 대통령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로 노기(怒氣)를 표현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분노를 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연출됐던 두 사람의 대립구도가 재연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및 조 전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을 두고 청와대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사이에 '엇박자'가 이어질 때의 대립각이 이번 대선 정국으로 옮겨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 후보 사이에 형성돼야 할 대결 구도가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면담하고 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용자들 도와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 · 낮은 이자율 · 최상의 결과
개인별 맞춤 용자 · 캐쉬아웃

바로 연락 주세요.

“

급하게 시작한 상태이고 준비가 미약한 제 상태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안될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상황을 맞춰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켈리님을보고 만나지도 않았고 느껴지는 강한믿음!! 이분은 정말 이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것 같습니다. 미국말이 더 편하시분인데도 한국말로 자세히 제가 알수 있도록 언제나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 Lim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ubleu) Parish of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16ZdT>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JUST LISTED:
FANTASTIC NEW BUSINESS
OPPORTUNITY IN BROOKLINE!
드라이클리닝 사업
\$250,000.00

JIN CHUNG, REALTOR®

kw
KELLERWILLIAMS.

(857) 231 - 3096 JINCHUNG@KW.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sj.usgtf@gmail.com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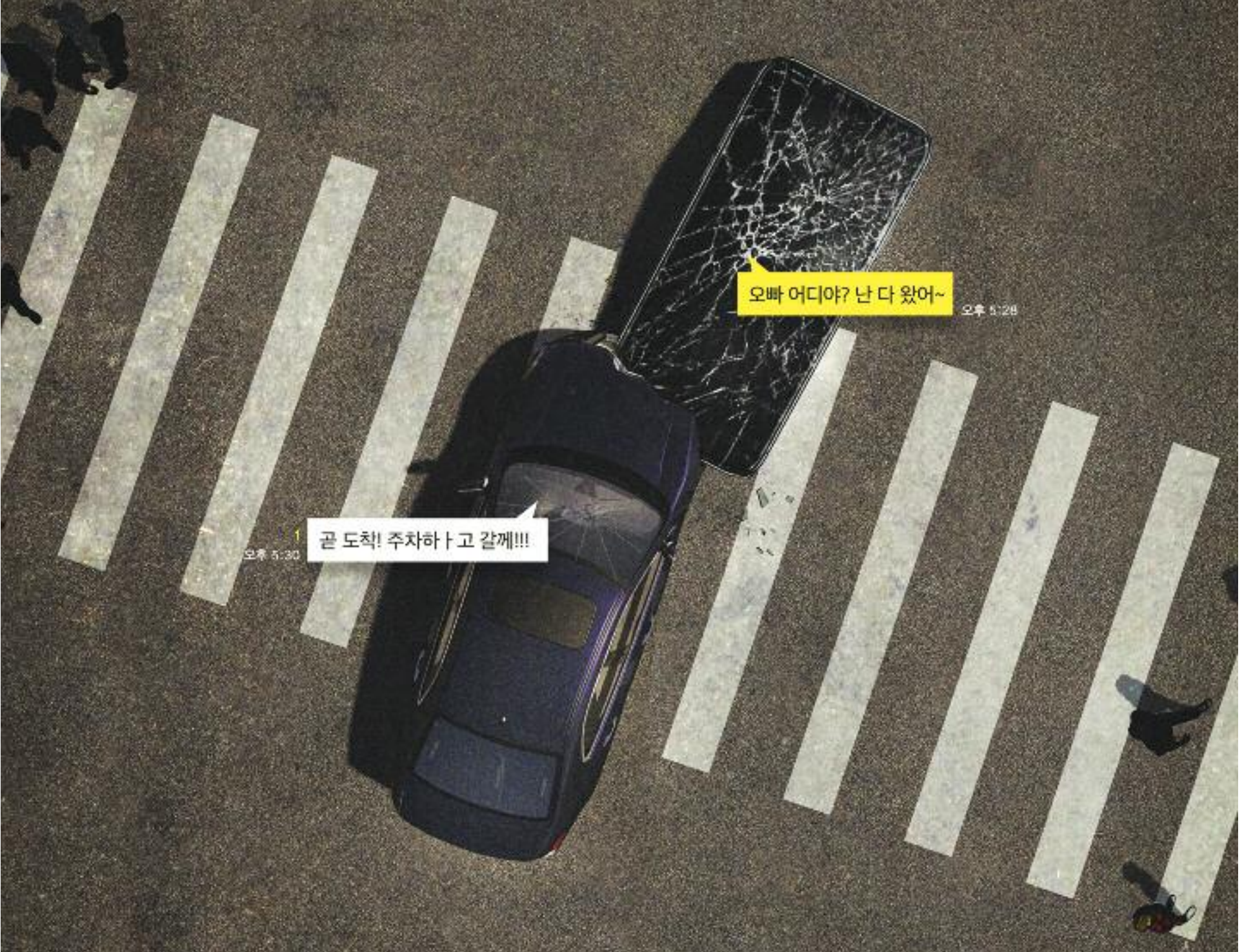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국민 김규연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11:28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후 5:30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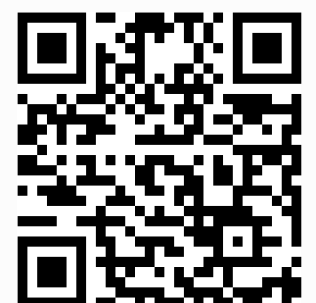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진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72) 신년 투자 결심

새해(2022)를 맞이하며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을 경험한다. 주식시장 조정(Correction)인 10% 하락까지 다다랐다. 지난 2년 팬데믹으로 집에 머물며 뜨거웠던 주식시장 열기가 식으며 두렵기까지 하다. 나스닥 전체 46%의 주식이 50% 이상 폭락했으니 주식에 투자한 것을 후회하고 잠까지 편히 자지 못한다.

주식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말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핫(Hot)하다는 종목에 투자한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에 우연히 투자 돈이 부풀어지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Risk)은 완전히 잊고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해진다.

주식시장은 1970년부터 50년 동안 2년에 1번은 10% 하락(Correction), 4년에 1번은 20% 하락(Bear Market), 그리고 7년에 1번은 30% 폭락(Crash)을 경험했기에 주식시장의 하락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1973-1974에는 48% 폭락 그리고 2000-2002년에는 50% 폭락이라는 놀라운 하락을 경험했다. 2020년

3월에도 35% 폭락을 경험했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하락과 폭락이 분명 일어났다는 것이다.

나스닥의 76% 기업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경험하고 있으니 개별적인 회사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는 투자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투자 위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27%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대박(?)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폭넓게 투자하면 위험성을 적게 하면서 투자 돈이 불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한국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지만, 실제 우리의 학자금, 노후대책, 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주식시장 미래를 예측하며 투자하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요즘 뜨거운 주식 종목도 내가 은퇴할 때 어떠한 상황으로 변해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

다. 새해 결심으로 다음 3가지를 실행에 옮겨보자.

*비상금 마련의 중요성이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 사정,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수가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준비로 한동안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비상금이 마련되면 투자를 해야 한다. 직장인이 봉급 일부를 매달 투자(Dollar Cost Averaging)하는 것처럼 개인이 은행과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꾸준히 자동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은퇴를 위한 투자제도(IRA)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50세 미만은 매년 \$6,000 그리고 50세 이상은 \$7,000씩 할 수 있다. 수익률 10%는 \$6,000씩 25년 하면 약 \$70만 불 그리고 30년은 \$120만 불로 불어난다. 미국 주식시장 과거 90년 연평균 수익률은 10%이다.

*주식시장은 투자 위험성을 고려하여 폭넓게 투자해야 한다. 요즘 뜨거운 몇 개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500대 기업(S&P 500) 혹은 3,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주식시장 전체(Total Stock Market)에 투자하는 것이다. 한 종목으로 여러 회사 투자로 분산 투자가 되고 투자경비도 매우 저렴하다. 지난 13년 연평균 수익률은 16%로 높은 수익률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투자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은퇴가 가깝고 이미 은퇴한 투자자는 100% 주식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나이, 위험성, 자산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식, 채권, 머니마켓, 등에 자산분배 후 분산 투자해야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내가 조절(Control)할 수 없는 일에는 조금 무관심하며, 본인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노후대책을 차근 차근 실행하는 한 해가 되어보자.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내 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식시장 역사가 분명 보여준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3세 풍월주風月主 군관공軍官公(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풍월주 김군관은 김천광金天光을 부제로 발탁했다. 그것은 능력보다는 인척관계로 얽혀있는 고리가 더 많이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천광의 부모는 수품과 천장낭주(김염장의 누이)이다. 그들은 딸 천운天雲과 아들 천광을 낳았다. 천운은 절세가인으로 가히 당시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를 여인이 없었다. 화랑세기에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경국지색傾國之色' 367)으로 기록해 놓았다. 천광 또한 얼굴이 아름답고 재주가 많아 김양도가 총애하며 자신의 신하로 삼았다. 김양도는 당시 으뜸가는 미인으로 꼽혔던 천운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천광을 더 사랑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계획대로 천광의 도움을 얻어 천운을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 이미 보랏빛을 아내로 맞고 있었기에 정처로 드릴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천장낭주에게 찾아갔다. 결국 양도는 천운을 첩으로 얻는데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사랑 나누기에 몰두하였다. 그러자 보랏은 시기 보다는 염려가 앞섰다. 이에 보랏은 군관의 도움을 청하였고, 군관은 상관이었지만 양도에

게 처첩의 도를 직언했다. 즉 첩과 색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가정과 풍월주의 소임에 소홀하지 말라는 당부였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양도는 천운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곧 군관의 사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운을 군관과 맺어 혼인시켰다. 그리고 천광은 군관에게 소속되었고, 김군관이 풍월주가 되자 천광은 김양도의 후광으로 부제가 되었다. 김군관은 사사로운 정으로 부제를 발탁한다면 낭도들이 부당하다고 원성을 쏟아낼 것이라며 염려했지만, 양도는 모든 것을 인지하면서도 특유의 과단성으로 전혀 개의치 않았다. 또한 천운도 동생 천광이 능력보다는 사정私情과 인척관계로 부제에 임명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당연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의 남편이 된 김군관 역시 김양도의 첩인 명란의 동생이었기에 양도의 부제로 발탁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김군관은 비교적 소심하게 매사를 처리했다. 15살부터 활을 잘 쏘았고 힘이 세서 당할 자가 없었으며, 또한 병서 읽기를 좋아했고, 그릇이 커서 당할 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하지만 후일 김양도와 함께 사신으로 당나라로 가다가 재미로 본 점쟁이의 말에 꽃혀서 점점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었다. 점쟁이는 그

들에게 "두 공공은 모두 장상將相의 운을 가졌습니다. 단비명에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김양도는 과연 당나라에 억류되어 있다가 670년 옥사하였다. 군관은 점이 신통하게 맞는 것을 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소심해졌다. 그리고 그도 마침내 '김흠돌의 난'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다.

367)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인'이라는 의미의 고사성어인데 이연년李延年的 시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한나라 무제武帝가 재임할 당시, 이연년이 궁중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타고난 음악의 천재로 노래와 춤이 특출하여 늘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그가 가무를 펼칠 때는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한다.

어느날, 이연년은 황제 앞에서 춤을 추며 '가인가佳人歌'를 불렀다.

"北方有佳人북방유가인/絶世而獨立절세이독립/一顧傾人城일고경인성/再顧傾人國재고경인국/寧不知傾城與傾國영부지경성여경국/佳人難再得가인난재득;

북쪽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세상과 떨어져 홀로 서 있네/한 번 돌아보면 성이 기울고/두 번 돌아보면 나라가 기울네/성을 기울게 하고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

가?/다만 아름다운 여인은 다시 얻기가 어렵다네"

황제가 이 노래를 듣고 나서 "훌륭하구나, 그러나 세상에 그런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탄식하였다.

황제의 누나인 평양공주는 이 노래가 이연년의 여동생에 대한 노래라는 것을 알고, 황제에게 이연년이 실제로 그런 동생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제서야 황제는 이연년이 동생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곧 그녀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춤을 잘 추었다. 또한 황제의 총애를 받아 아들 하나를 낳으니, 그가 창읍애왕昌邑哀王이다. 애석하게도 절세가인 이부인李夫人은 젊어서 일찍 죽었다. 황제가 불쌍히 여겨 그녀의 모습을 감천궁甘天宮에 그렸다. 위사후衛思后가 폐위된 지 4년 후에 무제가 죽었고, 대장군 광광霍光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이부인의 신주를 황실 사당에 모시고 존호를 효무황후孝武皇后라고 추서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사기(사마천),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어떤 집을 원하세요?

방은 몇 개가 좋을지, 화장실은 몇 개가 좋을지, 일층집이 좋을지, 이층집이 좋을지, 집 크기는 얼마나 좋을지, 차고는 자동차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미디어룸이 있으면 좋을지, 카페트가 좋을지, 마루가 좋을지, 어떤 색 페인트가 좋을지, 트래디셔널 스타일이 좋을지, 모

던 스타일이 좋을지, 캐비닛은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Granite가 좋을지, Quartz가 좋을지 등. 집을 살 때는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몇 달,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새집을 짓는 옵션을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난 새집이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새집은 건축업체 (builder)에 따라 Production 빌더 와 Semi-custom, Custom 빌더로 나눌 수 있습니다. Custom 쪽으로 갈수록 선택의 폭은 커지지만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집 자재 센터나 디자인 잡지 등을 보시고 원하시는 집 스타일을 확실히 정해 놓는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나중에도 만족스러운 집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센터 미팅이 다 끝나게 되면 다음은 집을 짓기 전에 빌더 미팅을 통해 빌더와 바닥재 선택 (Floor Plan)과 디자인 옵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집을 짓게 됩니다.



보통 Semi-Custom Builder 의 경우 바닥재 (Floor Plan)에서 옵션을 제공하여 방을 더 넣거나 위치를 바꾸어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Custom Builder 이 경우엔 건축 설계부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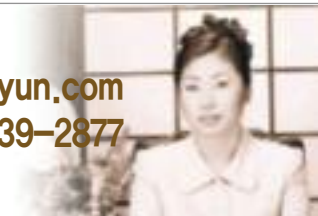
바닥재 (Floorplan)가 정해지고 나면 집 안팎의 디자인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빌더가 정해놓은 디자인 센터에 가서 디자이너와 직접 고르시게 됩니다. 디자인 센터 제공 시간은 빌더마다 다릅니다. 보통 두 세군대를 방문 하실 수도 있고 한군데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센터에 빌더가 미리 정해 놓은 레벨 (Level)로 고르시면 추가 비용은 들지 않지만 Upgrade 된 디자인이나 색상을 고르시면 그 업그레이드 폭만큼 비용이 추가 되게 됩니다. 바닥재, 타일, 캐비닛, 벽돌, 문, 문고리 등 등까지 자세히 고르셔야 합니다. 모든 선택이 끝나고 나서야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2월 13일 - 2월 1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좋은 인연을 얻는</p> <p>●운수: 꿈꿨던 손도 마주 잡으면 금방 온기가 돌고 따뜻해집니다. 주위 사람에게 협조하는 자세로 나가면 좋은 인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희망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들어오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애정: 매력을 느끼는 상대가 나타납니다. 감정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급진전하게 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6, 17일 길일. 13, 19일 주의.</p>	<p>소띠 심사숙고해서</p> <p>●운수: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밝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으니 금전 관리에 각별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상대를 올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3, 16일 길일. 14, 15일 주의.</p>	<p>범띠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p> <p>●운수: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나든지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의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애정: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주위에서만 맴돌아가는 좋은 배필을 놓칠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4, 19일 길일. 13, 15일 주의.</p>
<p>토끼띠 크고 넓게 생각해야</p> <p>●운수: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만 곧 다가올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 가까운 곳에서만 찾지 말고 크고 넓게 생각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보세요. 먼 곳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이 따를 것입니다. ●애정: 다소 서먹했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에 관한 생각의 변화로 전보다 더욱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p>	<p>용띠 최선을 다해</p> <p>●운수: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으니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것저것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는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금전: 목표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애정: 서두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줄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3, 16일 길일. 14, 17일 주의.</p>	<p>뱀띠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야</p> <p>●운수: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위기가 싫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무리하지 마세요. 금전 융통이 되지 않아서 고전할 수 있습니다. ●애정: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이 있으나 망설이고 있다면 적당한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p>
<p>말띠 눈앞에 훌쩍 붙어</p> <p>●운수: 눈앞에 훌쩍 붙어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전력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자금 사정에 나아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차츰 승통이 트이게 되겠습니다. ●애정: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회활동 속에서 자신의 사랑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임이나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p>	<p>양띠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p> <p>●운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신의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로 인한 소화기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애정: 상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 서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5, 19일 길일. 14, 17일 주의.</p>	<p>원숭이띠 열과 성을 다하도록</p> <p>●운수: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가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세요. ●금전: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일 처리를 하세요. ●애정: 아무것도 아닌 일도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집을 잡더라도 맞서서 상대하지 마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14, 16일 길일. 15, 18일 주의.</p>
<p>닭띠 귀담아 들어주어야</p> <p>●운수: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언행에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로도 구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금전: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일에 힘을 쏟다 보면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 상대에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때그때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해가 생기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4, 17일 길일. 16, 19일 주의.</p>	<p>개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p> <p>●운수: 소신껏 뜻을 펼치게 되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더 큰 세계로 나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준비와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애정: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상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10일 길일. 8, 11일 주의.</p>	<p>돼지띠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p> <p>●운수: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마저 약해지지 마세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금전: 계산이 너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애정: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판단하여 원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6, 19일 길일. 15, 18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2/11
캐쉬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10/29
렉싱턴에 있는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지금 우리 학교는' 8일 연속 넷플릭스 1위...K-장르물 강세 계속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지금 우리 학교는'이 넷플릭스 한국 장르물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은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쇼 부문 순위 1위에 오른 뒤 8일째인 전날까지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상에 오른 국가 수는 지난 3월 59개국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4일에는 56개국, 5일에는 53개국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0여개국에서 1위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터키, 멕시코, 호주 등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4일 하루 1위를 기록했다가 2위로 내려왔다.

전날 기준 국가별 순위에서 평가점수는 848포인트로 경쟁작들을 단연 앞서며 장기 흥행이 예상된다.

2위는 지난 2일 시즌2가 공개된 '검은 옥망'으로 평가점수는 528포인트, 3위는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은 날 공개된 '프



롬 더 월드'로 418포인트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는 지난해 '오징어 게임'이 돌풍을 일으킨 이후 새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특히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은 장르극의 인기가 높다.

디스토피아를 그린 연상호 감독의 '지옥' 역시 지난해 11월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위에 올랐고, 다음날인 21일에는 2위로 밀렸지만, 22일부터 열흘간 줄곧 1위를 유지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한국 장르물은 궁금하고 신비한 부분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얘기를 한다"며 "전 세계 사람들이 작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작품 속 이야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같다는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장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에 뿌리를 두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대안을 다양한 상상력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통해 주류 콘텐츠로 올라설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일오비의 시작과 현재...앨범 '이어북 2021' 25일 발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프로듀서 그룹 공일오비(O15B)의 지난 한해 음악 활동을 볼 수 있는 음반이 나온다.

9일 소속사 더공일오비에 따르면 공일오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표한 싱글 12곡을 모은 결산 앨범 '이어북 2021'(Yearbook 2021)을 이달 25일 발매한다.

앨범에는 공일오비의 시작부터 최근까지의 음악이 다양하게 담긴다.

공일오비는 데뷔 앨범에 수록된 '텃 빈

거리에서', '때늦은 비는' 등 두 곡을 리메이크해 이번 앨범 1·2번 트랙으로 담았다. 특히 '텃 빈 거리에서'는 원곡을 부른 가수 윤종신이 31년 만에 다시 노래했다.

이 외에 이태권, 다원, 일레인, 필(FIL), 동하, 김재우, 여나 등이 피쳐링한 곡을 더해 총 12곡이 수록됐다.

이번 '이어북 2021' 앨범은 곡 소개, 작업 과정 등이 담긴 88쪽 분량의 책자와 CD로 구성됐다.

yes@yna.co.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공국어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제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뜨개질 명상

버릇이 되었다. 집에서 TV를 시청할 때 나 병원에 건강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그리고 여행을 떠날 때는 언제나 잊지 않고 챙기는 물건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뜨개 실과 대바늘과 코바늘을 챙기게 된 것이다. 요즘이야 누구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이 있어 어디에서든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 견딜만하지만, 오래전에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의 지루함을 채우느라 놓여진 잡지나 신문을 펼쳐 읽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서일까. 어려서부터 뜨개질을 좋아했던 모양이다. 겨울방학이면 손뜨개로 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짤 설쳐가며 밤새 뜨다가 엄마에게 야단맞은 기억도 있다.

처음에는 기다림의 시간을 달래려고 시작했던 뜨개질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게는 아주 특별한 '뜨개질 명상'이 되었다. 무슨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달래며 다스리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임을 나중에는 깨달았다.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어느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누군가에게 꺼내고 싶지 않고 때로는 혼자서 삭여야 할 일들이 있지 않던가. 그럴 때 그 어느 방법보다도 내게는 뜨개질이 마음의 평온을 찾아주는 좋은 방

법이 되었고 여유로운 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안내자였다. 이제는 떨어지려 해도 떨어질 수 없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처음 뜨개질을 배웠던 때는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을 게다. 다섯 살 터울의 바로 위의 언니는 손재주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다. 열한 살 차이의 둘째 언니는 재봉틀에서 무엇인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막내 언니는 그런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한 동네의 옆집 언니가 막내 언니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겨울방학이면 뜨개질을 늘 했던 기억이다. 그때 옆에서 옆집 언니에게 배우며 제일 쉬이 배울 수 있는 목도리 뜨는 연습을 시작해 모자도 뜨고 장갑도 떠보았었다. 그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겨울방학이면 맘에 드는 색깔의 털실을 찾아 뜨곤 했었다.

그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겨울방학이면 즐겨했던 뜨개질을 그 후로는 잊고 살았다. 그리고 한참 후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처음으로 다시 뜨개 실과 바늘을 찾게 되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라기 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었다. 정말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그때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모양이다. 태교를 위한 클래식 음악을 잠으로 많이도 들었었다. 노래를 잘 부를 줄 모르지만, 유행가보다는 클래식 음악을 더 좋아했던 터라 그 시간에 필요한 선택이었나 보다.

그렇게 태교를 위해 클래식 음악과 함께 뜨개질을 시작했다. 하얀 구멍 뜨개 실과 코바늘을 사서 성경 구절의 '믿음, 소망, 사랑'의 글자를 세로로 새겨 넣으며 가느다란 실로 몇 날 며칠이 아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똑같은 구절의 것을 5개를 뒀다. 그리고 첫 아이(딸아이)가 태어난 후 그에 어울리는 액자를 선택해 표구해서 시댁 가족들에게 선물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다시 구멍 뜨개 실로 그 문구를 넣어 떠보라면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아기를 갖은 엄마이기에 아기를 위해서 그 얇고 긴 뜨개 실로 한 땀 한 땀 '믿음, 소망, 사랑'을 새기며 울린 간절한 기도인 것이다.

그리고 세 아이를 키우느라 또 뜨개질을 잊고 살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며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모양이다. 그렇게 다시 뜨개 실과 대바늘 그리고 코바늘을 사서 모자와 목도리 그리고 솜을

뜨기 시작했다. 무더운 여름에도 여행하게 될 때는 잊지 않고 두꺼운 털실과 뜨개 바늘을 챙겨다니곤 했다. 그것은 겨울을 위한 준비로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여유롭게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한국을 방문할 때도 여지없이 털실과 뜨개바늘을 챙겨서 간다. 오가는 전철 안의 의자에 앉아 멀찍하게 서로 바라보는 일보다 뜨개질로 집중하는 시간이 좋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산행을 시작하며 겨울에는 색색깔의 빨강, 노랑, 파랑, 오렌지 등 원색의 털모자가 늘기 시작했다. 내가 손수 짜서 쓰는 그 기분은 말할 것도 없이 즐겁다. 하지만 내가 손수 정성스럽게 짠 모자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일일 게다. 그래서 몇 년 전 아는 지인이 안내해주셨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프리카의 신생아들을 위한 모자(순면 뜨개 실)를 뜨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 작은 모자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달란트'를 다른 이와 나누는 '달란트 기브'는 참으로 감사와 축복이 아니던가.



동요 한구절이다. 들을 적엔 가슴이 저리고 시린다. 혼자 남아 있을 아이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엄마가 섬그늘에

한담객설閑談客說: 징징대지 말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굴 따라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 주는 자장 노래에
팔베고 스프르르 잠이 듭니다
(섬집 아기)

Home Alone. 영화 제목이다. 가족들은 모두 허둥지둥 여행 준비에 바빴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아이 혼자 다락인가에 숨어 있다가, 가족일행을 놓쳤다. 아이는 놀랐는데, 가족들이 떠난 행한 빈집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여행길에 나선 가족은 아이가 없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 남겨진 아이 이름이 케빈이었는데, 몇살이더라. 영화에서 케빈이 울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 나라면 징징 혼자 울었을

거다.
내 고모님 회고담이다. 어릴적에 자주 우셨던 모양이다. 위로는 나이차이 크게 나는 오빠들만 있었는데, 어린 소녀는 쉬이 눈에 띄이지 않았단다. 주목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뻥하면 울어 제기는 거였다는 거다. 하지만 울음을 계속할 수는 없는법. 시간이 지나면서 우는 게 아니었는데, 그저 징징 댔다던가. 저녁때가 주로 우는 시간이었는데 아주 맞춤이었다. 몸은 노느라 피곤하고 배는 고파올 테니 말이다. 마침 대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적이라 했다.
문제는 목이 쉬어라 우는 아이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단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은 통하지 않았다는 것. 징징대며 칭얼대

는 아이에게는 젖은 커녕 저녁밥도 없었다는 거다. 혹시 누가 와서 얼러 주면, 못이기는 척 들레 밥상에 앉으려만.
내 어머니의 기억도 불린다. 어머니 왈. '큰집에서 자주 식사할 일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큰집엔 식구가 많다 보니 밥은 있으나 숟가락은 항상 부족했느니라.' 숟가락이 그럴진대, 젓가락은 부녀들에겐 아예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던가.
올 한해는 징징대지 않고 넘길 수 있을까. 기대가 한다. 수저를 갖춘 저녁밥상을 받을 수 있어 그건 감사하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요한 20:11)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바이러스 같은 가짜뉴스, 예방은 팩트체크 백신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 뉴스를 무작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킵니다.
뉴스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기사와 비교하는
팩트체크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모두가 팩트체크라는 백신으로 허위정보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김유진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명의를 처방: 불안 장애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을 평생 열거 만들었던 '불안장애'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희진 교수의 도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생물진화론'을 주장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

그는 1859년 진화론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발표하며 인간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장 최초로 제시한 인물이다. 과학자로서 물리학에서의 뉴턴의 역할과 더불어 가장 혁신적인 사상을 보여준 그의 이론은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인간 찰스 다윈은 어린 시절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불안과 싸워야 했다.

찰스 다윈은 항상 불안 증세로 인해 두근거림, 두통, 어지럼증을 달고 살았고, 스물여덟살 이후부터 낮 시간의 3분의 1은 토하거나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야 했을 만큼 신경성 위장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한다. 그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 잦은 복통과 오심에 시달렸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심하게 구토를 했다. 예를 들어 과학자 모임에서 짧은 발언을 하고 난 후, 불안감에 24시간 동안 구토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불안을 느꼈는데, 이는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의 증상으

로 보인다. 다윈은 비글호로 세계일주를 다녀온 이후 평생 시골에서 은둔하며 살았고 고하며, 증세가 심할 때는 가족과 만나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을 정도로 그의 광장공포증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으로 인한 두근거림, 두통, 어지럼증, 소화 불량, 오심, 구토 등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받은 찰스 다윈, 현대 의료기술로 과거의 그를 도울 수 있다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명의를 처방
환자명: 찰스 다윈 (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

직업: 영국의 생물학자, 진화론의 창시자
병명: 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불안장애의 정의와 대표 증상

불안장애는 극도의 공포, 불안 및 관련된 행동 장애의 특징을 지닌 질환을 통칭한다. 공포란 실제로 있거나 혹은 지각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감정 반응이고, 불안이란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측에서 발생하는 반응이다. 정상 불안은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적응적인 기능을 가지지만, 이런 불안반응이 실제 위협 상황이 아닌 경우에 나타나거나 지나칠 경우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악화시키게 된다.

공황장애는 이러한 병적 불안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공황장애는 반복적인 공황발작, 즉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과 호흡곤란, 심계항진, 두통, 어지럼증, 소화 불량, 오심, 구토 등의 자

율신경계 증상 및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특징으로 한다. 또다시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예기 불안, 공황발작이 생길 만한 상황에 대한 회피 반응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광장공포증이 공황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광장공포증은 대중교통이나 열린 공간, 밀폐된 공간, 줄을 서거나 군중 속에 있는 등 탈출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장소에 대한 현저한 공포와 불안을 특징으로 한다. 광장공포증 환자들은 자신의 집외의 장소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지장 받는다. 그외, 일상생활에 대한 과도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불안과 근육 긴장, 피로감, 수면 장애 등의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범불안장애, 타인에 의한 모욕감이나 당혹감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비합리적인 두려움과 회피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불안장애 등이 있다.

특정공포증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불안, 두려움, 회피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주사공포증 등이 있다. 원인 및 발병을 부정적 정서성, 불안 민감성, 행동 억제 성향 등 불안장애의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나 상실, 자신을 향한 모욕이나 비판,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불안장애가 발생한다는 이론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갑상선기능항진증, 부정맥, 천식 등 다른 의학적 상태가 불안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안장애는 임상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 중 하나이다.

치료방법 불안장애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두 갈래로 나뉜다.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비롯한 항우울제와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를 주로 사용하며, 치료 저항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비정형 항정신병약물, 항경련제 등을 병합 사용하기도 한다. 인지행동치료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질병을 악화시키는 인지외곡을 교정하고, 회피 상황에 점차 노출시키면서 복식호흡과 근육 이완 등을 훈련하는 치료법이다.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했을 때 가장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약물적 치료로는 마음챙김명상 등이 있다. 생활습관 개선 알코올이나 카페인 등은 불안장애의 위험 인자 및 악화 인자로, 커피나 콜라, 초콜릿, 탄산음료 등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과 술은 삼가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예방할 수 있다.

"불안장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 (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 010-3469-4040 / ID : huramkorea
✉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스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견적
상담

🌐 www.namuma.com
 ✉ info@namuma.com
 ☎ 617-775-4771
 📍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 @namu_finewood

INSTAGRAM



HAPPY NEW YEAR

근하신년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스톤 코리아는 새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욱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 더욱 쉽고 편하게 보스톤코리아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욱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